

2025 Vol. 28

# ISSUE & FOCUS

전국연구개발지원단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 Contents

|                                                                                               |                                                                                       |
|-----------------------------------------------------------------------------------------------|---------------------------------------------------------------------------------------|
| 04                                                                                            | 15                                                                                    |
| 01<br>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br>인천 로봇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br>정책적 추진방향                                | 02<br>지역과학기술 COLUMN<br>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br>경기도 정책방향                            |
| 20                                                                                            | 48                                                                                    |
| 03<br>연구개발지원단 NEWS<br>1. 지역혁신 체계 구축<br>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br>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br>4. 글로벌/광역협력 | 04<br>R&D 성공사례<br>스마트 헬스케어이징을 향한 강원도의 도전<br>「천연물 기반 바이오 소재로 지역 고령화와 산업<br>혁신을 동시에 잡다」 |
| 53                                                                                            |                                                                                       |
| 05<br>전국연구개발지원단현황<br>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br>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

#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인천 로봇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방향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역과학기술 이슈페이퍼(ISSUE PAPER)

## 인천 로봇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방향<sup>1)</sup>

인천연구개발지원단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AI 기반 첨단로봇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육성경쟁 심화

- 로봇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며, 산업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 15~64세 생산가능인구 : 2030년에 '20년 대비 320만명 감소 전망('22, 노동부)

\*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22, 통계청)

- 로봇에 대한 미래 수요는 다양한 기술 혁신, 시장 트렌드 및 새로운 사업 분야의 성장에 의해 주도될 전망

#### ■ 국제로봇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은 '25년 시장에서 부각될 5대 글로벌 로봇 트렌드를 선정

- '25년 로봇산업에는 AI와의 결합, 휴머노이드, 지속가능성, 신사업 진출과 고객세분화, 노동력 부족 대응 로봇 등의 트렌드 등장

[표 1] '25년 로봇산업 글로벌 트렌드

| 트렌드            | 주요 내용                                                                                                                                                                                                                                                               |
|----------------|---------------------------------------------------------------------------------------------------------------------------------------------------------------------------------------------------------------------------------------------------------------------|
| 분석적·물리적·생성형 A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적 AI) 로봇이 센서에서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고, 외부 환경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li> <li>(물리적 AI) 가상 환경에서 자가 훈련과 경험 기반 하에서 동작</li> <li>(생성형 AI) 물리적 AI에서 'ChatGPT 모델(변곡점)'을 참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전통적 산업 환경과 서비스 로봇에 적용 가능</li> </ul> |
| 단일목적 휴머노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 스타트업은 범용 로봇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자동차 산업과 창고 분야의 제조업체들은 단일 목적형 수행하는 휴머노이드에 집중</li> <li>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류 및 창고 분야에서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제성과 확장성은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li> </ul>                                                                |

1) 이 페이퍼는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센터 이진규 과장과 혁신정책팀 신수빈 인턴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
|-----------------|-----------------------------------------------------------------------------------|---------------------------------------------------------------------------------------------------------------------------------------------------------------------------------------------------------------------------------------------------------|
|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효율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UN)환경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관련 규정의 준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제조기업은 로봇 도입을 통해 이에 대응 가능</li> <li>이와 동시에 로봇 부품의 경량 구조 설계, 절전 모드 도입, 생체공학 기반 그리고 기술 등을 통해 로봇 자체의 에너지 효율 개선</li> </ul>                                                   |
| 신사업 분야 및 고객 세분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형 로봇(RaaS, Robot-as-a-Service)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통해 고정자본 투자 없이도 로봇 자동화 가능</li> <li>저비용 로봇은 잠재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조업 외에도 건설, 실험실 자동화, 창고 등 신규 사업분야로 확대 가능</li> <li>자동화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도 넘어설 수 있음</li> </ul> |
| 노동력 부족 대응 로봇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 도입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 가능</li> <li>4D 작업(더럽고, 지루하고, 위험하고, 단순한 작업)을 자동화하여 근로자가 고부가가치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음</li> <li>협동 로봇,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등은 혁신 기술 도입</li> </ul>                                                        |

\*자료 : IFR, TOP 5 Global Robotics Trends 2025, 2025. 1. 22).

## ■ 주요 선진국에서는 로봇산업을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다각적 지원정책을 추진

- (미국) FRR(Foundation Research in Robotic) 등, 13억 달러 R&D 지원
- (EU) ADRA(AI, Data and Robotics Association), '27년까지 26억 유로 지원
- 국내도 정부, 지자체의 로봇산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

\* (정부) 로봇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22.10),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발표('24.1)

\* (지자체) △(서울) 수서 로봇 클러스터 구축 추진,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을 통한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증서비스 제공, △(경남) 첨단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 추진

## ■ 인천도 로봇산업을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인지하고 6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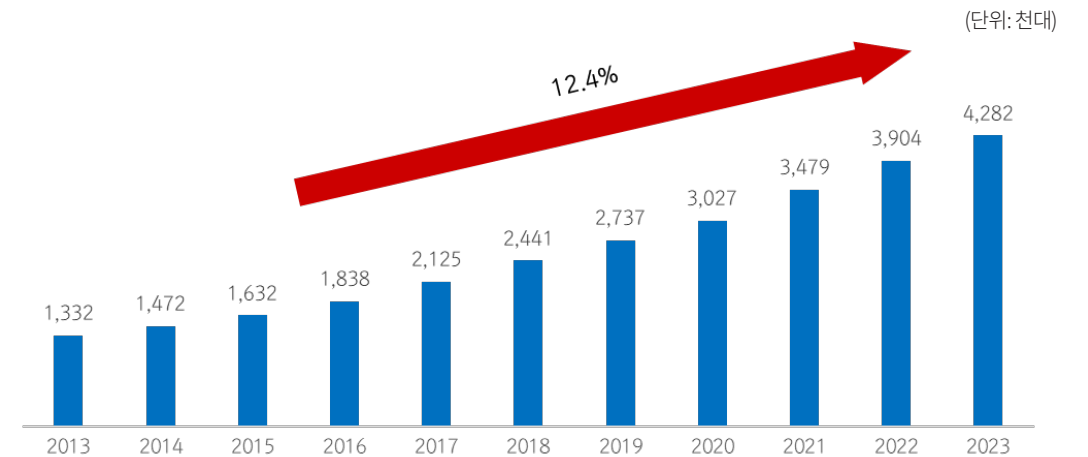
- 인천 전 산업군에 로봇 도입의 기반 조성을 준비하고, 침체된 제조업 부흥을 주도할 산업으로 인지하고 6대 전략산업으로 선정
- 한편, 로봇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거점인 로봇랜드의 조성 방향을 기존 테마파크 중심에서 로봇 앵커기업/연구기관/중소기업 등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등 로봇산업의 혁신성장 촉진 유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인천 로봇산업의 지속적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II. 국내외 로봇산업 동향

### ■ 글로벌 산업용 로봇은 '23년 기준 428.2만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13년 이후 연평균 12.4% 증가하였으며 '24년 이후 매년 50만대 이상이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

- (기존 산업용 로봇) '13년 133.2만대 설치되어 있던 산업용 로봇은 '23년 428.2만대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12.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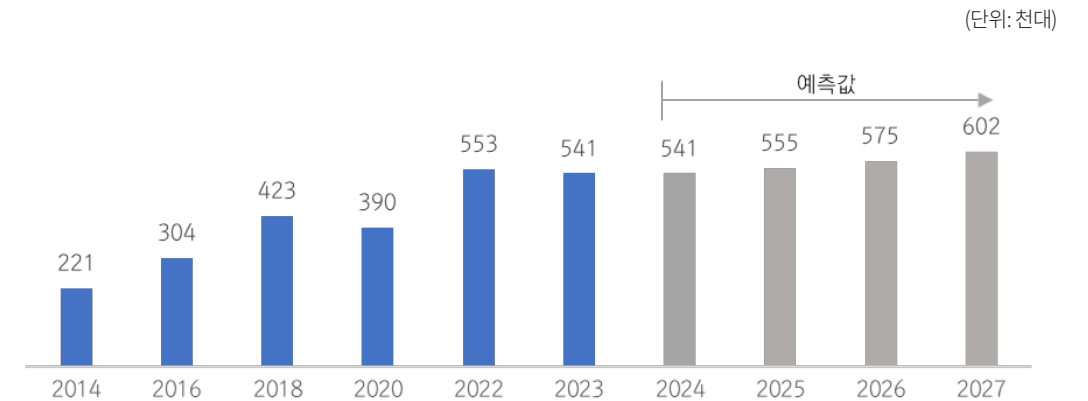
[그림 1] 글로벌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누적 추이('13~'23)



\*자료: IFR, World Robotics(2024. 9월).

- (신규 설치) 연간 신규 설치 산업용 로봇은 '14년 22.1만대에서 '23년 54.1만대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 '27년 60.2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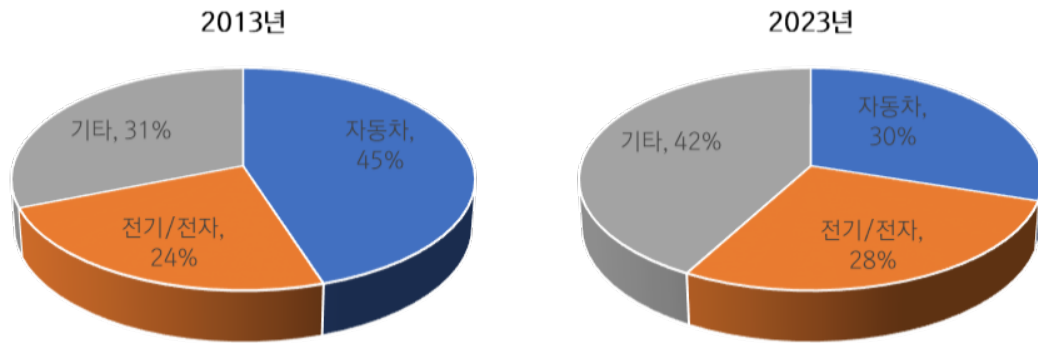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산업용 로봇 연간 신규 설치 대수 추이('14~'27)



\*자료: IFR, World Robotics(2024. 9월).

- 산업용 로봇 활용 부문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전기/전자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SW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부문(기타) 걸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그림 3] 부문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비중 비교('1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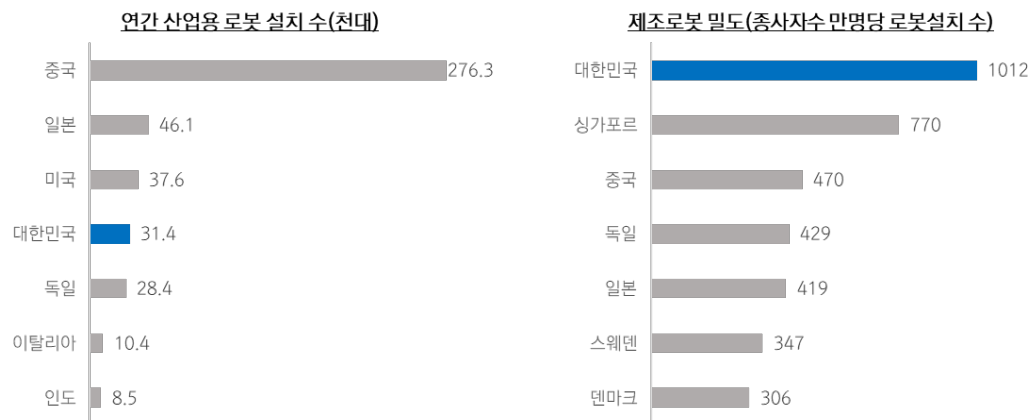


\*자료: World Robotics(2024. 9월).

## ■ 국내 로봇시장은 '23년 기준 사업체수 2,524개, 매출액은 5조 9,805억원

- (로봇보급) '23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가별 산업용 로봇 설치 수 중국(276만대), 일본(46만대), 미국(37.6만대)에 이은 31.4만대로 세계 4위 수준이며 로봇밀도 기준으로는 세계1위
- 산업용 로봇 설치 수는 중국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국 이 79%를 차지
- 로봇 밀도는 종사자수 1만명당 로봇 설치수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은 1,012대로 전세계 평균인 162대의 6배가 넘는 수치

[그림 4] '23년 국가별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 제조로봇 밀도



\*자료: World Robotics(2024. 9월; 11월).

- (시장규모)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3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수 2,524개, 매출액 규모는 5조 9,805억원으로 산출
- 사업체수 기준으로 보면 부품 및 SW가 1,417개(56.1%)로 가장 많으며 제조용 로봇 567개(22.5%), 전문서비스용 로봇 567(14.8%) 순
-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제조용 로봇 2조 9,903억원(50.0%)으로 가장 많고 부품 및 SW 1조 9,446억원(32.5%), 전문서비스 로봇 6,143억원(10.3%) 순

[표 2] 국내 로봇산업 사업체수 및 매출액 추이('21~'23년)

(단위: 개, 억원)

| 구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21~'23<br>매출액 성장률 |
|----------|-------|--------|-------|--------|-------|--------|--------------------|
|          | 사업체수  | 매출액    | 사업체수  | 매출액    | 사업체수  | 매출액    |                    |
| 제조용 로봇   | 565   | 28,740 | 568   | 29,747 | 567   | 29,903 | 2.0                |
| 전문서비스 로봇 | 355   | 5,091  | 360   | 5,417  | 374   | 6,143  | 9.8                |
| 개인서비스 로봇 | 161   | 3,985  | 161   | 4,406  | 166   | 4,313  | 4.0                |
| 부품 및 SW  | 1,419 | 18,266 | 1,420 | 19,363 | 1,417 | 19,446 | 3.2                |
| 합계       | 2,500 | 56,082 | 2,509 | 58,933 | 2,524 | 59,805 | 3.3                |

\*자료: '23년 로봇산업 실태조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24).

## ■ 국내 로봇산업은 제조용 로봇 중심으로 형성

- (제조용 로봇) 매출액은 2조 9,903억 원으로 국내 로봇산업의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기·전자 등 대형 산업에 집중 보급(80% 이상)
- 대기업 중심 구조이나, 전체 비중의 97%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과도 두각을 나타내는 추세

\* 매출규모: '20년 기준 현대로보틱스(1,909억원), 고영테크놀러지(1,795억원), 로보스타(1,068억원), 티로보틱스(606억원) 및 신성이엔지(478억원)(Invest Korea)

- (서비스 로봇) 매출액은 1조 456억 원으로, 국내 로봇산업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시장 진입 활발

\* 매출규모: '20년 기준 LG전자(856억), 삼성전자(779억), 유진로봇(577억), 에브리봇(491억) (Invest Korea)

\* 현대로보틱스: 산업 로봇 기술기반으로 방역로봇, 서빙로봇으로 사업 확장

\* LG전자, 삼성전자: 기술력 있는 로봇기업의 지분 매입을 통해 영역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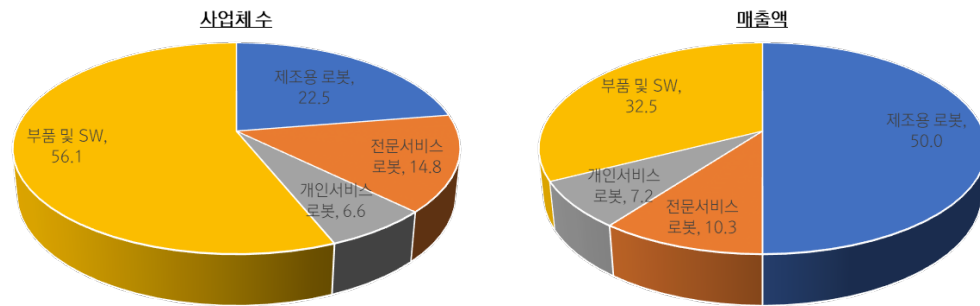
- (부품·SW) 매출액은 1조 9,446억원으로 전체 로봇산업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경쟁력은 일본 독일 선진국의 2/3 수준

\* (부품·SW 조달경쟁력) 日 97, 獨 94.8, 스위스 87.2, 美 80.6, 中 73.6, 韓 67.2

\* 조달경쟁력: 로봇 부품 생산 역량(조달 역량), 100점 기준

\* (부품국산화율) ('16) 41.1% → ('18) 43.2% → ('21) 44.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그림 5] '23년 부문별 로봇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비중



\*자료: '23년 로봇산업 실태조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24).

### III. 국·내외 정책 동향

#### ■ 첨단로봇은 로봇산업 자체 규모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로봇기술개발,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

- (미국) 지능로봇 관련 기술 및 시장에서의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기술과 시장의 선도를 위해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지향하고 있음
  - FRR(Foundational Research in Robotics)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시스템 전반의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 13억 달러가 투입
- (일본) 저출산 고령화, 생산 연령인구의 감소, 빈번한 자연재해, 사회인프라의 노후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봇에 주목하고 2030년까지 공작기계 연 11만대, 산업용 로봇 연 35만대 생산을 목표로 연구개발 지원
- (중국) 중 '21년 12월 “2021~2035” 로봇산업발전규획)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로봇기술 혁신과 첨단제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공통기술, 프론티어 기술 등)과 첨단제품 공급 확대를 통해 지능로봇 관련 기술향상과 산업 및 사회에의 활용확대를 도모
  - '23년 2월, 2025년까지 제조업 로봇 밀도를 2020년(246대)보다 2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봇+활용방안」 10)을 발표

#### ■ 국내 로봇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는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있으며 로봇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로봇 보급확대, 지역별로 특화된 로봇 인프라 구축을 강조

-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며 제4차 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
  -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은 로봇 보급확대, 로봇친화적 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음
    - 로봇 보급 전략은 공공 분야에 첨단로봇을 집중 보급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로봇친화적 환경조성 전략은 로봇법과 규제개혁을 통한 로봇활용의 제도적 뒷받침, 시장진입을 위한 실증테스트 설비 신설, 로봇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주요 골자
- ※ 지역별 로봇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로봇산업 역량을 집중하는 지역인프라 강화를 강조

### IV. 인천 로봇산업 주요 현황

#### ■ 인천은 로봇산업을 6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핵심 인프라로서 로봇랜드를 로봇산업 클러스터로 전환

-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19)을 통해 지속가능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로봇산업을 인천 6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
- 한편, 인천 로봇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로봇랜드 조성 방향을 기존 테마파크에서 로봇 앵커기업·연구기관·중소기업 등 로봇산업집적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산업생태계 확장 촉진

#### ■ 인천 로봇산업은 '22년 기준 세부분문별로는 제조업 로봇이 가장 많고, 사업체수 234개, 평균 매출액은 105.4억원 수준

- (사업체수) '22년 기준 총 사업체수는 234개로 '20년 대비 24개가 증가하였고 세부 부문별로 보면 전문서비스 로봇(18개→47개)은 증가한 반면 부품 및 SW(73개→63개)는 사업체수가 감소
  - 부문별 비중에서도 전문서비스 로봇은 11.5%p 증가하였으며 부품 및 SW는 7.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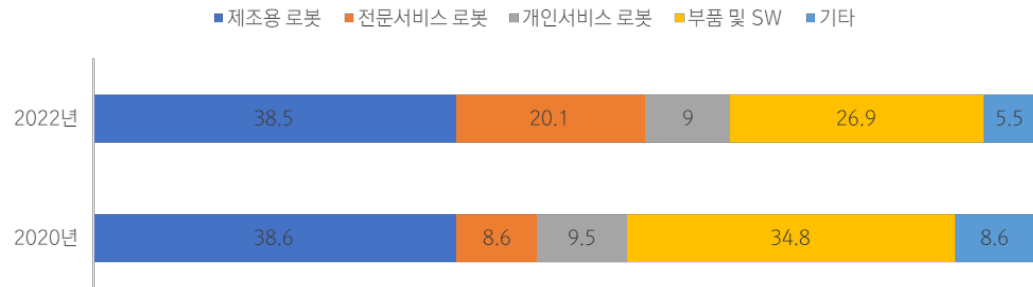
[표 3] 인천 로봇산업 부문별 사업체수

| (단위: 개)  |        |          |          |         |    |     |
|----------|--------|----------|----------|---------|----|-----|
| 구 분      | 제조용 로봇 | 전문서비스 로봇 | 개인서비스 로봇 | 부품 및 SW | 기타 | 합계  |
| 2022년(A) | 90     | 47       | 21       | 63      | 13 | 234 |
| 2020년(B) | 81     | 18       | 20       | 73      | 18 | 210 |
| 증감(B-A)  | 9      | 29       | 1        | △10     | △5 | 24  |

\*자료: 2022년 인천 로봇산업 실태조사, 인천테크노파크(2023).

[그림 6] '인천 로봇산업 부문별 사업체수 비중 변화('20, '22년)

(단위: %)



\*자료: 2022년 인천 로봇산업 실태조사, 인천테크노파크(2023).

- (매출액) '22년 기준 매출액 응답 기업 13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액은 105.4억원이었으며 부문별로 보면 부품 및 SW가 140.4억원으로 평균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큼

[표 4] '22년 인천 로봇산업 부문별 평균매출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조용 로봇 | 전문서비스 로봇 | 개인서비스 로봇 | 부품 및 SW | 기타    | 전체     |
|--------|--------|----------|----------|---------|-------|--------|
| 조사기업 수 | 44     | 30       | 11       | 42      | 3     | 130    |
| 평균 매출액 | 7,726  | 12,699   | 4,984    | 14,037  | 1,432 | 10,535 |

\*사례수 : 5개년('18~'22) 재무정보가 모두 공개된 기업 기준 (130개사)

\*자료: 2022년 인천 로봇산업 실태조사, 인천테크노파크(2023).

- (기업규모) 인천 로봇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타산업 대비 업력이 짧은 초기·성장기업 비중이 높음
- 업력별 분포로도 1년~3년 미만(7.3%), 3년~7년 미만(31.2%), 7년~15년 미만(31.2%)로 타 산업 대비 상대적

## V. 인천 로봇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

### ■ 글로벌 로봇시장이 확대되고 로봇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육성 의지, 인천의 입지적 인프라 등 기회와 강점을 적극 활용 필요

- 로봇·AI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제조, 서비스 산업 등 로봇산업과 융합되는 광범위한 신사업 시장 창출
- 정부에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지역별 로봇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로봇산업 역량을 집중하는 지역별 특화 인프라와 정책 강조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수도권 고속도로망 등 국내 최고의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랜드,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첨단기술 거점과 연계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

### ■ 지역 내 자생적 산업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생태계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촉진

- 로봇랜드 내 로봇 전문기업 및 AI·SW 등 타업종과 융합가능한 로봇클러스터 조성 필요
  - 산업 전반에 걸친 로봇 기술 확산에 따라 선도기술 및 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간 협력 창출 필요
  - 이를 로봇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시 로봇산업(로봇제조, SW, 로봇관련 서비스 등)과의 정합도가 높은 유망 기업들을 유치, 집적
- 효율적 R&D 투자와 실증을 위한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수도권 로봇기업, 연구소, 대학 산학연 혁신주체 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산업진흥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산업 제 분야와 융합되는 로봇 기술개발의 R&D 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 ■ 로봇·ICT 실증 생태계 형성을 위한 선도형 지역특화 실증 테스트베드 거점구축

- 인천공항, 인천항 등 국가 산업 물류 거점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지역특화형 로봇 기술 실증 거점 조성
  - 산업우선도가 높은 물류분야를 중심으로 실내외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향후 가정, 공공 등 서비스 환경 제조환경 모사환경까지 실증할 수 있는 거점으로 도약 필요
  - 실증 테스트 베드 거점 구축을 통해 연구소/대학/스타트업에게 다각도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사업화 성공가능성 제고
- 신사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로봇산업 트렌드 대응을 위한 공공 주도 규제 샌드박스 및 실증지원체계 운영
  - 도심 내 자율주행 배송과 같은 로봇 기반 서비스는 다양한 행정 인허가, 통신연계 안전 검증 등이 요구되어 신속한 제도 개선의 병행 필요
  - 로봇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기술적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선도적으로 규제·제도 개선 추진

## ■ 로봇핵심기술기반(휴머노이드)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지역 내외를 아우르는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모든 현장에 범용가능한 로봇
  - 테슬라, 유니트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5년 4월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을 시키면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개발에 총력
  - 인천은 로봇산업의 고도화와 차별화를 위해 휴머노이드 요소기술 확보는 필연적이며 이는 기술스펙트럼 확대와 지역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 (지역 내 협력) 휴머노이드 요소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 연계 R&D 조성이 필수적으로 지역 대학 전문인력, 자원을 적극 협력하여 인천 주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개발 추진이 중요
  - \* (레인보우로보틱스) KAIST 휴머노이드 로봇팀에서 시작하여 국내 최초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개발, '25년 삼성전자와 기업결합
  - \* (에이로봇)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서 시작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개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대회 ‘로보컵’ 3년 연속 수상
- (국제협력)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개발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일기술이 아닌 기술 집약적융합 플랫폼으로 첨단기술동향과 트렌드 분석이 매우 중요
  -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창출을 위한 '26년 로보컵을 개최하고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국제교류의 장 창출
  - \* 로보컵 대회 규모 : 45개국 2,500여명 선수단 및 관계자 등 약 15,000명

# 02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 경기도 정책방향  
경기연구개발지원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 경기도 정책방향

경기연구개발지원단

### 1. 서론

교육부는 지난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 도입을 통해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지방정부(광역지자체) 주도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2023년~2024년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동을 거친 RISE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RISE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보유하던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지역 대학 및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RISE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역의 경제, 산업, 교육 등의 여건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와 지역 대학 및 시군,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의 RISE 운영방안 및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지난 '25년 2월에는 교육부의 지자체 RISE 사업계획 평가에서 몇몇 지자체들과 함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의 경제, 산업, 교육 등 주요 여건 및 현안과 이에 기반한 RISE 추진과제를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RISE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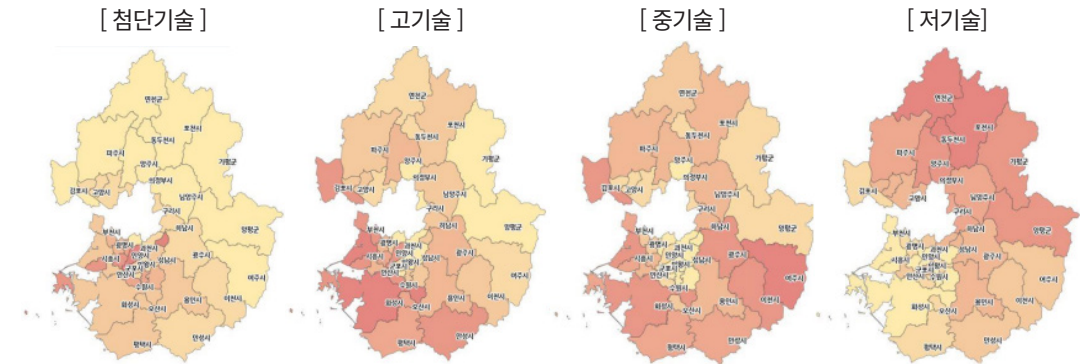
### 2. 경기도 여건 및 현안

지역별 RISE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의 경제, 산업, 인구, 교육 등의 여건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또는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교육, 경제, 산업 등의 주요 여건들이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교육 측면에서 경기도 소재 대학교는 총 61개교(고등교육법 제2조 기준, 대학 31개교 및 전문대학 30개교)이며, 타지역 소재 대학의 캠퍼스를 포함할 경우 대학 43개교, 전문대학 32개교 등 총 75개교가 도내에 분포하고 있다. 대학 재학생은 389천명, 졸업생 107천명, 전임교원 11천명 등으로 각각 우리나라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특허출원, 산학협력 수익 등의 부문에서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 여건과 대학-기업 간 협력 현황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 및 산업 측면에서, '22년 기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명목, GRDP)은 546.8조원(전국 1위), 경제성장률은 3.2%(전국 평균 2.7%)에 달해 국내 최대의 경제규모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비중이 높은 특징(반도체 수출액 '12년 \$164억 → '22년 \$452억)을 보이며, 민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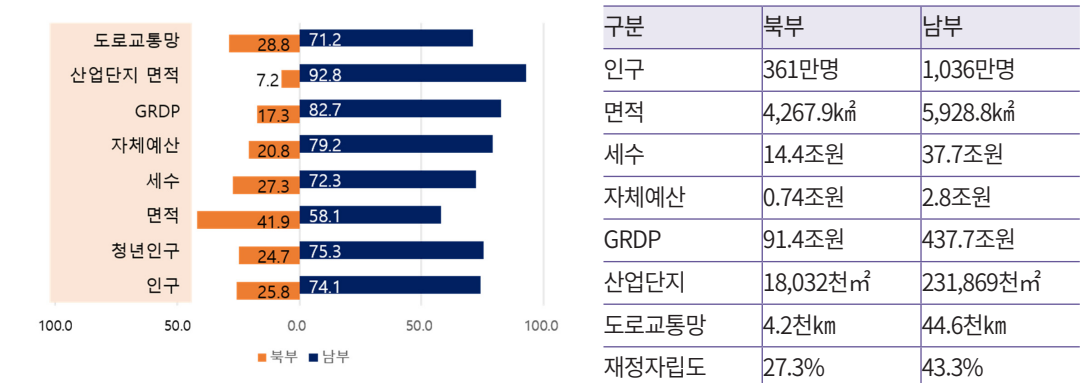
정부의 투자·지원이 활발('21년 R&D 투자액: 51조원(우리나라의 약 50.9%))해 미래의 발전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 산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기술 난이도에 따라 산업 집적지가 구분된다는 점으로, 의약품, 화학, 전자부품, 컴퓨터, 자동차 등 첨단기술 및 고기술 제조업은 주로 남서부권에,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중기술 업종은 남동부 지역에, 섬유, 가구, 식품 등 저기술 업종은 주로 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 출처: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업종통계지도(LQ기준)).

[그림 1] 경기도 제조업 분포현황

경기도의 핵심 현안은 지역 간 격차 문제로, 행정구역 전체를 놓고 볼 때 경제와 산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와 성과를 구축하고 있으나, 경기 남부와 북부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경기도 1인당 GRDP('20년)는 3,652만원인데, 이 가운데 경기남부는 4,146만원, 경기북부는 2,492만원으로 지역 간 약 1.7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경기 남부에 반도체, 자동차, IT 등 첨단산업이 집중된 반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주로 소규모 제조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충분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 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향후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경기통계(<https://stat.gg.go.kr/>)

[그림 2] 경기남부-북부 간 주요 격차 현황

### 3. 경기도 RISE 추진과제

경기도는 이상의 주요 여건 및 현안에 대한 검토와 대학 및 시군,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IT 등 첨단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미래성장산업(G7: 반도체, AI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양자, 디지털전환)에 대한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로 형성된 산업별 집적지를 고도화하여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지역산업 친화적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비단 재학생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고교생, 대학생, 재직자 등 전반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간 격차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과 산업, 대학 간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추진할 경기도 RISE의 비전으로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를 제시하고, 주요 추진과제로 ①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②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③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④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등을 제시했다.

| 추진과제                | 세부과제                                                                 |                                                    |
|---------------------|----------------------------------------------------------------------|----------------------------------------------------|
| ①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 1-1. 경기 G7 선도인재 양성<br>1-3.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 고도화                         | 1-2. 경기 G7 R&D 기술혁신 지원<br>1-4. 판교+20α G7 스타트업 육성   |
| ②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 2-1.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br>2-2. 지역기반산업 Value-up 지원                    | 2-3. 지역혁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br>2-4. 개방형 창업클러스터 활성화 |
| ③ 생애-이음형평생직업 교육 혁신  | 3-1. 지역산업 수요맞춤 경기 평생교육 체제 지원<br>3-3. 기업 수요맞춤 재직자 역량강화 지원             | 3-2. 고교-대학-산업 연계 산학 일체 교육 운영                       |
| ④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 4-1. 경기북부 성장동력 허브 구축<br>4-3.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br>4-5. 초광역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 4-2. 경기도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해결<br>4-4. 경기 늘봄학교 혁신 지원      |

### 4.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경기도의 경제, 산업, 교육 등 주요 여건 및 당면 현안과 이에 기반한 RISE 추진과제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RISE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대학지원 체계는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기존 관련 사업을 재편하는 수준을 넘어 각 지역의 중장기 혁신과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면적인 정책 전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새롭게 도입된 RISE 체계의 원활한 정착과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은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와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역할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책무 수행이라는 새로운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학은 학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하며, 지자체 역시 정책방향 및 운영계획 수립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RISE의 운영방식은 실질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 대학, 산업계, 지역주민 등 다층적인 주체들이 각기 다른 기대와 요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자원 배분 이상의 정교한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조정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중장기적 미래성장 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개별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지역 전체의 전략적 비전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RISE는 비록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체계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기획과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된 구조에 더 가깝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일제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상당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창구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과도 맞닿아있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상당수 지자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 자립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RISE가 명실상부한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제 위임을 넘어,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자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RISE가 진정한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보다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체계 또한 함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 4. 글로벌/광역협력

연구개발지원단(NEWS)

## 1. 지역혁신 체계 구축

###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착수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착수보고회를 통해 본격적인 연구 추진의 방향과 과제가 공유됐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첨단 패키징 기술의 부상, 자동차·가전 등에서 활용되는 레거시 공정의 재조명 등 최근 주요 기술 흐름이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도내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집중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기업 지원과 혁신 주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반도체산업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착수

경기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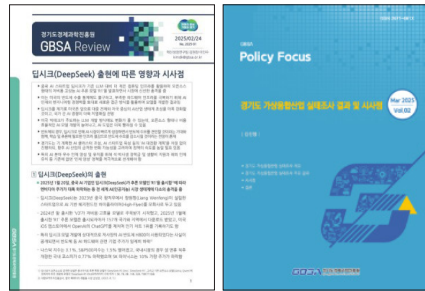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이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가 개최됐으며,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 계획의 개요와 추진 일정, 세부 과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다양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가상융합산업의 정의와 산업 범위 설정, 기업 지원 전략 등 실질적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가상융합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략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연구개발지원단,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이 경기도 산업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들은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딥시크 출현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오픈소스 모델이 글로벌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를 조망했다. 딥시크의 등장은 AI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며, 경기도는 인재 양성 및 유연한 정책 대응을 통해 AI 대전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고서인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은 도내 317개 기업을 조사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 연계, 해외 인증 대응, 인력 양성, R&D 지원, 정책 연계 강화 등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보고서는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의 ‘Policy Focus’와 ‘GBSA Review’ 시리즈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도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참고사이트](https://gsba.or.kr/board/industrial_trend.do) [https://gsba.or.kr/board/industrial\\_trend.do](https://gsba.or.kr/board/industrial_trend.do)

### 부산시·BISTEP, 과기정통부·KISTEP과 지역 과학기술정책 혁신 방안 논의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함께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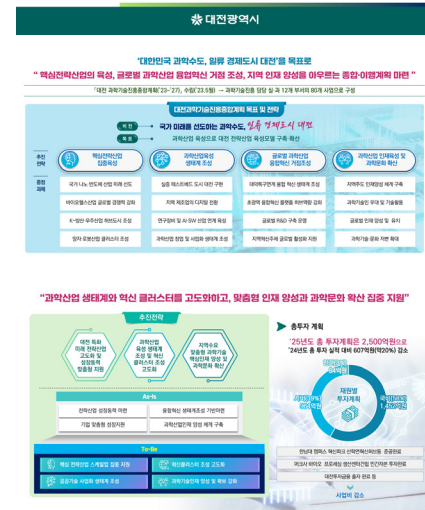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시와 BISTEP이 현재 추진 중인 R&D 예산 배분·조정 제도 및 연구개발 기획 지원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부산시는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실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R&D 포괄보조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발굴·선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중앙정부의 R&D 정책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지역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과학기술위원회 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23~2027)의 2024년 추진실적과 2025년 시행계획을 심의를 통해 확정함

- 2025년 2,500억원(국비 1,452억 원, 시비 964억 원, 민간 84억 원)투입

- ① 핵심전략산업 집중육성, ② 과학산업육성 생태계 조성, ③ 글로벌 과학산업 융합혁신 거점조성, ④ 과학산업 인재육성 및 과학문화 확산과 같은 4대 전략과 16개 중점과제 80개 세부과제로 구성

- 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과학산업 생태계 및 클러스터 고도화와 지역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임

<https://www.today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390>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5119500063>



## 전남서 지방 최초 과기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열려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라남도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화순에서 열린 가운데 전남도가 제안한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을 2026년 예산 연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이날 화순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에서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과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각 시·도 부단체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회의를 열었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교육부·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조정·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며, 예산 배분과 조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는 2022년 협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개최돼 국가 연구개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이라는 협의회 설립 취지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됐다. 특히 정부의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과학기술 기반이 열악한 전남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결과 및 지원방안, 지자체 2026년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지자체 2026년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안)에 전남도가 제안한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2026~ 2030년·총사업비 250억 원)’이 포함됐다.

해양배터리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과기부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에 확산시켜 관련 산업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등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방의 잠재력을 살린 지역 주도 R&D가 국가와 지방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현재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정부 R&D 예산이 지역으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2단계 사업 등 전남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주요 R&D 사업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한 팀이 돼 지자체별로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과학 기술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angj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9>

## 2. 지역R&D 추진 기반 강화

### 2025년 경남 과학기술혁신 연구회 운영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기획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 경남 과학기술혁신 연구회」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기획 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종 12개 연구회가 선정되어 각 1,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들 연구회는 모두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기획 주제는 ▲우주항공 ▲반도체 ▲원전 ▲수소에너지 ▲전장 시스템 ▲바이오헬스 등 경남의 전략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과제 도출과 정부 사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선정평가는 지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대면 발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계획의 필요성과 목표,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선정된 연구회들은 앞으로 약 6개월간 기획 활동을 수행하며, 도출된 결과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R&D 과제 제안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 경상북도 첨단산업 R&D사업 설명회 개최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2월 21일(금) 국·도비 주요 공모사업 안내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경상북도 첨단산업 R&D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5년 정부 첨단산업 정책 및 부처별 투자 방향 설명에 이어, '25년 국·도비 주요 공모사업 안내 및 대응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사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R&D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며, 지역 연구개발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협력 제안 기회로 활용해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동향분석 플랫폼 운영



2024년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6대 과학기술 분야(미래모빌리티, 에너지, ICT·SW, 바이오헬스, 로봇, 과학기술정책)와 관련하여 격월로 각 기술분야별 담당연구원과 기술전문가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기술전문가가 선정한 이슈페이퍼, 기술동향 등의 보고서를 리뷰하고 이를 정리한 서평을 작성하여, 분야별 과학기술 관련 현안과 이슈 등 동향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이를 통해 내부연구원들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의 강화를 유도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제공하는 서평과 보고서를 지역 산·학·연 R&D 주체가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미래성장동력 신사업 발굴과 기획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향정보는 지난 3월을 시작으로 미래모빌리티·에너지·ICT 및 SW는 홀수월, 바이오헬스·로봇·과학기술정책은 짝수월에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는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 내Monthly Pick에 업로드 된다.

[참고사이트](http://www.dtis.re.kr)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dtis.re.kr)-정보-Monthly P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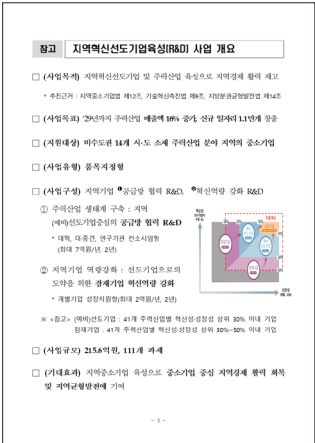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매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입안자 등 수요자의 최신 통계자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및 찾아가는 설명회”의 착수 시점을 6개월 앞당겨 실시하였다. 기존 8월에 시작하던 성과조사를 3월로 조정하여 데이터의 적시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후속사업 기획과 중앙부처 및 대구시 예산의 효율적 조정 및 배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번 조사 시기 조정으로 2025년 8월에 가집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잠정치치를 발표하고, 최종 본보고서는 2025년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DTIS를 활용한 최신 데이터 제공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활용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신규과제 선정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테크노파크는 2024년 12월부터 지역산업육성사업 R&D 과제의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과제의 선정평가, 협약, 기획 및 사후관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주관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약 123억 원에 이르며,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 14개 시·도와 함께 2년간 총 8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38개 과제에 532억 원, 지역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77개 과제에 300억 원이 배정된다. 대구는 총 9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54억 원 규모의 R&D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테크노파크는 향후 R&D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 프로젝트와의 연계, 후속 지원사업 발굴 등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 미래전략캠퍼스 공동 개최, 정책연구 성과 공유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부산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부산지식서비스융합협회가 주최하는 ‘2025 미래전략캠퍼스’를 부산경제진흥원 등의 지역 혁신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미래전략캠퍼스는 부산 및 동남권 산업 주요 이슈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여 ‘도시 경제의 전환점, 미래 성장동력을 연결하다<AI 파도를 너머>’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산연구개발지원단도 2024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부산의 2040 과학기술 아젠다’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부산의 중장기적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홍보책자 및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 성과와 활동을 지역 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연구성과 확산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4228?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4228?sid=101>

##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 첨단바이오 분야」 발간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최신 시장 동향을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확산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의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첨단바이오 분야 중 ‘백신’, ‘세포·유전자 치료’, ‘합성생물학’, ‘디지털 헬스’에 중점을 두고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이오 분야 유망기술의 산업 분야별 적용 현황과 활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료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독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바이오산업의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바이오 분야의 기술 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반 자료로 제공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사이트](https://www.stis.or.kr/home)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https://www.stis.or.kr/home>)-  
게시판-발간자료

##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제1차 울산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구개발지원단은 지자체 R&D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과학기술 혁신기관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정부의 지역과학기술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지역 특화 발전전략 수립, 지역 기업 및 산업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추진 될 미래사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울산연지단은 2025년에도 지속적인 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통한 각 기관의 사업추진 현황, 여건분석 등을 통한 사업공유를 진행하며, 울산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사업기획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기술원 등 울산 지역 내 지역과학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을 추가하여 향후 기획 및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 - 과학기술로 성장하는 인천 -

### 「2025 인천 사이언스 페스티벌」 참가 및 인천 과학기술 홍보

인천연구개발지원단



“과학기술로 성장하는 인천”

인천광역시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개최한 「2025 인천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이 ‘과학기술로 성장하는 인천’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본 부스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인천의 과학기술 역량과 6대 전략산업을 소개하는 인포그래픽 전시물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 ‘과학기술로 성장하는 인천’ 부스 주요 운영 내용

- 인천시 과학기술 통계자료 소개
  - 인천의 경제 및 과학기술 인프라, 주요 성과
  - 국가 및 지자체 R&D 투자 현황
  - 지역 혁신클러스터 및 연구개발 기관 분포
- 인천 6대 전략산업 소개 및 홍보 스티커 배포
  - 전략산업 : 바이오, 항공, 로봇, 반도체,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이번 부스에는 약 150명의 시민이 방문하여 인천의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과학기술 인식 제고에 힘쓰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R&D종합정보시스템 만족도 조사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이 R&D종합정보시스템 개편을 위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개편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정보 접근성, 사용 편의성, 신청 절차 등에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는 공고 게시자와 과제 신청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만족도뿐 아니라 구체적인 개선 의견과 정성적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 관계자는 “사용자 한 분 한 분의 경험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연구개발 역량강화 교육 진행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제주연지단)은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과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총 119명의 기업 소속 임직원, 예비창업자 등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교육 내용은 △1회차는 연구개발사업의 이해 및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기업의 준비사항. △ 2회차는 ‘정부 공모사업 대응 연구개발 동향 이해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 3회차는 ‘연구개발 연구비 및 성과 관리 방법’으로 구성됐다.

제주연지단은 연구개발기획과 계획서는 기업의 사업이나 연구과제의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완료된 교육과정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사이트** <https://www.jejeutp.or.kr/board/business/edu/detail/519da77963ab46c086f92271442c1fc6>

**보도자료** <https://www.samd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774>(삼다일보: 제주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참가자 모집)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운영기관 협의체 Kick-off 회의 개최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 이하 충북과기원)은 4월 3일(목) 오송H호텔에서 「디지털 혁신거점 상생협력 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4개 광역 지자체(충북, 대구, 부산, 경남)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 4개 기관의 총괄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디지털 혁신거점 상생협력 협의체’는 4개 지역의 강점을 내세운 디지털 특화산업과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공동 홍보 및 운영 강화, △글로벌 진출형 협력사업 기획 △통합 IR 투자상담회 추진 △디지털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실태조사 등 공동 협력과제를 충북과기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연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특화 성장 전략 수립 및 거점의 브랜드화, 디지털 인프라의 집약적 구축을 통한 핵심 시설 기능 강화, 거점 내 미래 중심 기업 육성을 통해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기원 고근석 원장은 “이번 2025년도 Kick-off 회의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디지털 혁신거점 간의 연대와 실질적 상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산업 전반의 공동 성장을 이끌어내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27>

### 3. 지역특화 정책·사업기획·활용

#### 2025년 강원혁신 R&D 지원 사업 본격 착수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2025년 강원혁신 R&D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지역 맞춤형 기술개발 촉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혁신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중앙정부 공모 대응력 강화와 기술사업화 연계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정부 공모 과제 사전 기획을 돕는 ‘R&D 기획뱅크’ 사업과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중심의 ‘R&D 신속 마중물 지원 사업’이다.

기획뱅크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당 평균 1억 원 투입시 95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공모 수탁 성과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마중물 사업은 2021년부터 본격 운영되어 현재까지 총 26건의 지역 기술사업화 성과를 이끌어내며, 실질적인 R&D 결과물의 시장 연계에 기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도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등 ‘5+ICT’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R&D 과제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강원혁신 R&D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 했다.

그결과, 올해는 10개 과제에 대해 사전 R&D 기획뱅크 지원 및 12개 과제에 대한 R&D 마중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기반 R&D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학계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사이트](https://rnd.gsipa.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9) [https://rnd.gsipa.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9](https://rnd.gsipa.or.kr/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9)



#### 경남지역 신규 R&D 발굴기회를 위한 기관간 기술교류회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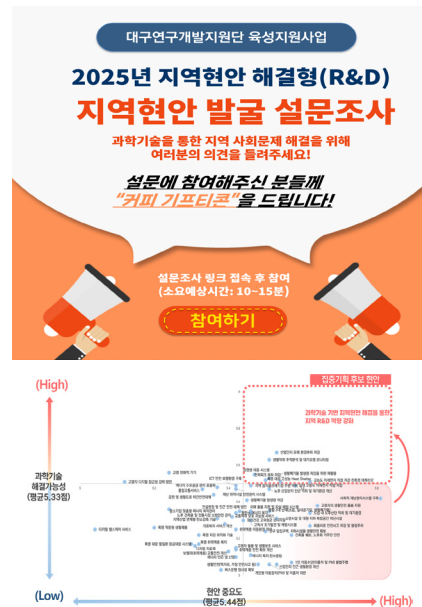
지난 2월 5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경남지역 신규 R&D 발굴 기회를 위한 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경상남도 미래산업과가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와 도내 주요 대학·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16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어진 분과 세션에서는 ▲우주항공 ▲방산·원전 ▲전기차·모빌리티 ▲반도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기술 세션이 운영되었으며, 각 세션별로 KAI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한화세미텍 등 전문가들이 소재·부품 기반의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R&D 기획과제 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장의 계기가 됐다. 경남연구개발지원단은 향후 이번 기술교류회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 연계사업 제안 및 자생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남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 지역 민원분석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기반의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기획 추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현안 해결형(R&D) 과제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민원자료 분석과 시민단체 및 과학기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된 민원자료와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과제 기획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R&D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 지역 기업부설연구소-대학 협의체 운영을 통한 R&D 기획지원 신규과제 공모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중앙정부 중·대형 R&D 과제의 지역유치를 위해 지역 기업부설연구소-대학 협의체 운영방안 및 기획지원 공모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이 대학과 공동 과제기획을 통해 지역수요 기반의 정부 핵심정책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과제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과학기술 산·학 네트워크 운영을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인력양성사업 연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대학 컨소시엄 중심 우수 과제 발굴·기획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주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지원하는 '2025년 중앙 및 지역 R&D 과제 기획·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달부터 10월까지 기획활동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체 운영 및 기획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자발적인 R&D 기획을 촉진하고, 중앙정부 R&D 과제 수주를 통해 연구비 확보 및 대학 공공연구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참고사이트](http://www.dgtp.or.kr)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 - 사업공고 - 공고번호(제20250428-101호)

## '2025년 서울시 지역주도 정책·사업 기획 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테크노파크

Seoul Techno Park

2025년 서울시 지역 주도 정책·사업 기획 지원사업 안내

[주]서울테크노파크는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지역 자치구의 민생경제정책 확보 및 도시환경·교통을 통한 지역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지역 주도 정책·사업 기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제)서울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추진사업명 :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사업(내역서 제 001호)
- 지원사업명 : 2025년 서울시 지역 주도 정책·사업 기획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제)서울테크노파크
- 사업 목적
  - 서울시 자치구 주도 정책·R&D·지역현안 관련 정책·사업 기획 지원을 통한 자치구의 혁신역량 강화
  - 각 자치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 기획 수립을 지원하여 지역·도시 경제의 경쟁력 강화
- 지원 대상 : 정책·사업 기획 수요가 있는 서울 지역 자치구
- 2025년도는 수요조사에 의해 서울 지역 3개 자치구 지원 예정
- 지원 기간 : 2025년 12월 31일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세부 내용                                                                                                                    |
|--------|--------------------------------------------------------------------------------------------------------------------------|
| 정책사업기획 | 서울시(기초지자체) 지역 현안·정책·사업 기획 지원<br>기초지자체(정책 기획) 기획·고도화 및 기획·사업 집행 지원 (전문가 자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br>지원 : <b>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b> |
| 연구지원   | 서울시(기초지자체) 지역 현안·정책·사업 기획 지원<br>기초지자체(정책 기획) 기획·고도화 및 기획·사업 집행 지원 (전문가 자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br>지원 : <b>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b> |
| 정책사업   | 서울시(기초지자체) 지역 현안·정책·사업 기획 지원<br>기초지자체(정책 기획) 기획·고도화 및 기획·사업 집행 지원 (전문가 자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br>지원 : <b>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b> |
| 연구지원   | 서울시(기초지자체) 지역 현안·정책·사업 기획 지원<br>기초지자체(정책 기획) 기획·고도화 및 기획·사업 집행 지원 (전문가 자문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br>지원 : <b>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b> |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의거 지역 주도 강화를 목표로 금년도부터 서울시 자치구 정책·사업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서울시 지역주도(자치구) 정책·사업 기획 지원사업'을 기획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서울시 자치구 주도 산업·R&D 관련 정책·사업기획 지원을 통한 자치구의 혁신역량 강화로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정책·사업기획 수요가 있는 자치구를 발굴하고, 자치구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자치구를 방문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도는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3개 내외 자치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지원 자치구 수 및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 사업의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5월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구와 킷오프 미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절차로는 자치구의 현안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의 정책기획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지원 분야는 크게 '보고서·기획서 작성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통계자료·설문조사 지원', '정책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자치구에서 정책·사업 기획 시 중점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이외에도 자치구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원 분야가 있으면 내부 검토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본 사업을 통해 자치구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지역 현안이 해결되어 궁극적으로 서울 지역의 경제 성장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5+1 세종미래전략산업'으로 국가 산업 도약에 기여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제공]



\*제1회 세종미래경제포럼 [세종테크노파크 제공]

세종TP는 최근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종TP 양현봉 원장은 “기계, 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과 자동차,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이 주축하면서 한국 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세종TP는 지식기술기반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꿔 어려움을 타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TP는 이를 위해 △정보보호산업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방송영상미디어 △양자산업 등을 키우는 ‘5+1 세종 미래전략산업’을 추진한다.

산업 추진을 위한 첫 발판으로 2026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모태펀드와 세종미래전략펀드, 그리고 세종시 소재 기업의 투자 재원을 모두 동원해 운용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 펀드로, 투자는 물론이고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세종TP는 또 효율적으로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해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신진 연구 인재와 경력 인재가 협력해 연구개발(R&D)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학이 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이끌 ‘세종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의 졸업생과 기업을 연계해 취업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세종TP는 또 중소기업, 대학, 연구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각 기관 간 시너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세종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는 창업과 연구개발,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세종TP는 5+1 세종 미래전략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세종미래경제포럼’도 개최한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시의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인, 교수 등이 참여해 세종시의 경제·산업 문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세종미래경제포럼에서 다룬 주제와 논의한 내용은 이슈 브리프 ‘세미다(세종이 미래다)’로 발간해 지자체와 시의회,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세미다는 세종의 각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사, 분석해 세종시와 산업계에 알리고 있다.

양 원장은 “세종TP는 우리나라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기업 육성 정책을 전파할 것”이라며 “신뢰를 토대로 한 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 국가 성장을 이끌 기업과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사이트](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01/131327575/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01/131327575/2>

[보도자료](#) 세종테크노파크 - 보도자료

\* 출처 : 동아일보(이설 기자 snow@donga.com)

## 탄소중립 연구회 KICK-OFF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4월 10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과학 기술 위원회 탄소중립연구회 기획과제 KICK-OF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전문위원, 도 관계자, TP 연구진 등이 참석해 전북형 R&D 과제 발굴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전북과학기술위원회의 2025년 운영방향과 과제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민선 8기 핵심 전략과 연계한 과학기술분야 기획과제 도출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과제를 재정비 함으로써, 전북의 산업 현장과 조정 방향을 반영한 실질적인 R&D 사업화 성과가 기대되며, 향후 국가예산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차전지 반도체 연구회 KICK-OFF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의 아젠다 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열린 연구회에서는 기술 수요조사 방향과 지역 특화 전략 설정을 중심으로 주요 논의가 진행됐다.

이차전지 분야는 환경 대응과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반도체 분야에선 후발주자로서의 전략적 접근, 그리고 지역 기업 및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현실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기업 유치와 유망 분야 중심의 아젠다 설정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수요조사와 연계한 과제 기획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2025년 '수요기반 R&amp;D과제 기획 지원사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기업지원정보

[R&D] 2025년 수요기반 R&D과제 기획 지원사업

1. 사업명  
2025년 제주연구개발지원단 기술수요조사

2. 세부사업명  
2025년 제주연구개발지원단 기술수요조사

| 제출기간                    | 발표기간                    | 비고 |
|-------------------------|-------------------------|----|
| 2025.03.10 ~ 2025.03.15 | 2025.04.10 ~ 2025.04.15 |    |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주 지역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산업 육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활성화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R&D 신규과제를 발굴하고자 '수요기반 R&D과제 기획 지원사업'의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R&D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매칭을 통해 R&D과제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R&D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소재 기업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기업은 과제별 기술·특허·시장 동향분석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술개발 분야 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추후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사이트](https://www.jejuip.or.kr/board/business/detail/cd4c3d25b56740159d2b767260be9ff0) <https://www.jejuip.or.kr/board/business/detail/cd4c3d25b56740159d2b767260be9ff0>

## 스마트팜·산불 재난안전 분야 R&amp;D 기획 본격 착수

- 지역 특화 산업 발굴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진행-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청남도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R&D) 과제 발굴을 위해 스마트팜과 산불 재난안전 분야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제 기획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0일(스마트팜 분과)과 21일(산불 재난안전 분과), 분과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충남도만의 특화 산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갖춘 충남형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되었다.

이어 4월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지역 R&D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행 방안과 협력 체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진행될 기획회의에서는 기획위원별 기술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신규 R&D 사업의 차별화 전략과 실행 가능성을 집중 논의 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과제는 27년도 국가 R&D 사업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 충북,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AI 대중화 시대, 도정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

충북연구개발지원단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13일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와 충청북도의 AI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도정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일 명지대 교수, 김명국 SKT부사장, 이웅세 마이크로소프트 부문장, 한세희 LG AI연구원 랩 장, 김필수 네이버 클라우드 상무, 이량혁 (주)구루미 CEO, 이승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홍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모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북도의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함께,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과 산업육성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바이오 헬스, 소재, 농업, 교통, 일자리 등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충북 도정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방안 및 신사업 연계 방안에 대해 도 관계자들과 함께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인공지능으로 영상, 노래 등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현안을 홍보하고 있으며, 도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속도와 파급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청북도는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에 발맞춰 도정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북 인공지능(AI) 중심 대전환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추진함과 동시에 일반 도민대상 ‘인공지능(AI)융합 정책발굴 해커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AI 기술이 급속히 일상생활로 확산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행정 분야에서 AI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가능한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고사이트](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429&bbsNo=65&nttNo=302386&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51)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429&bbsNo=65&nttNo=302386&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51>

## 4. 글로벌/광역협력

###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경북-강원 연계 세미나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 강원 지역 내 녹색융합클러스터(환경부 지정)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 20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경북-강원 제1차 광역 연계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세미나에는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관계자와 강원 지역 자원순환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이미 운영 중인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을 초청해, 사업 기획부터 추진 전략, 운영 방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북연지단은 노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탄소중립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 ESG 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태양전지, 전자기판 등 첨단 전자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 순환 모델과 사업화 사례는 강원 지역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는 강원 지역에서 최근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커피박(커피 찌꺼기) 자원화 및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 제고의 계기도 되었다. 커피박을 활용한 자원순환센터 설립 필요성, 업사이클링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었으며, 지역 내 실현 가능성과 공공-민간 협력 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강원연지단은 경북연지단의 협력으로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었다.



### 광주-대전 초광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4월 8일 「광주-대전 초광역 연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양 도시 간 공동R&D분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초광역 연계 공동연구 추진계획 안내(광주) ▲대전광주 소부장 산업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대전) ▲초광역 연구회 및 연구용역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지역 연지단 담당자, 지역별 산학연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초광역 내 연구개발 R&D 연계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양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워크숍을 기점으로, 초광역 연계협력 체계를 정례화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도시는 각기 다른 산업기반과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할 경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클 것으로 기대하고있으며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려, 이번 협력은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성공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광주와 대전이 초광역 산업협력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공동 연구개발과 전략산업 연계를 통해 양 지역이 상생하고, 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25년 제5기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2025년 4월 제5기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제5기 전국연지단 협의회 공로패 수여식 ▲제6기 협의회 임원선출 및 회칙 논의 ▲연지단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2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5기 협의회회의의 마지막 정기총회로써 협의회회의의 지난 활동과 성과들을 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5기 협의회를 위해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가 제5기 협의회 활동에 기여한 회장지역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을 통해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로패 수여식에 이어 제6기 협의회회의의 새로운 임원지역을 위한 선출 절차를 통해 차기 협의회 회장지역과 부회장, 감사 등 주요 직책에 대한 선임이 마무리되었으며, 새로운 협의회 임원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회칙 개정 및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 강화, 정보 공유 체계 확대, 공동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5기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장 지역인 광주연지단에서는 “회장단 지역을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지원단장 및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새로 시작하는 제6기 협의회 지역에서도 연지단의 역할 강화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미션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광주 초광역연계 양자 소부장 분야 사업발굴 추진

대전연구개발지원단



초광역(대전, 광주) 연계협력 분야를 양자기술로 선정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협력모델을 추진

- (대전) 양자기술 연구개발 및 시스템/인프라(사업화 생태계) 기반으로 사업추진

- (광주) 광(光)기술 및 AI 기반의 양자소재·부품(고부가가치 제조 공정 및 제품개발)으로 사업추진



대전과 광주는 각 지역의 강점을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 양자기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추진 과제 발굴할 계획 임

- R&D협력강화 및 특화분야 육성, 핵심 인프라 공동구축 및 활용, 전문인력양성 시스템 고도화, 기업성장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등



## 광역경제권 중심 광역연계형 협력협의체 구성 논의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2025년 선도연구개발지원단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광역권을 넘어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기존의 동남권 중심에서 대구, 경북의 광역경제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간 과학기술 기반 연계와 공동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경북연구개발지원단(선도)과 공동으로 울산, 경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이 참여한 ‘광역연계형 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초광역 협력의 방향과 공동 R&D과제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부산은 협력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 기반 초광역 협력을 통해 광역경제권 공동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글로벌 AI 기업 Blaize, 충북에 협력사무소 개소

-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내 AI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협력 -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최신 시장 동향을 관련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확산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의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첨단바이오 분야 중 ‘백신’, ‘세포·유전자 치료’, ‘합성생물학’, ‘디지털 헬스’에 중점을 두고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이오 분야 유망기술의 산업 분야별 적용 현황과 활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료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독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바이오산업의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첨단바이오 분야의 기술 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반 자료로 제공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사이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https://www.stis.or.kr/home>)-  
게시판-발간자료

## 세종테크노파크, 제3회 세종미래경제포럼 개최..지산학연 협력 강화 논의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테크노파크는 지난1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3회 세종미래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지산학연 협력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협력의 개념과 필요성을 재정립하고, 유형 분석을 통한 세종형 협력 모델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전략을 폭넓게 다뤘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산학연협회 양정모 본부장은, 지역 중심의 협력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부처 간 연계성 강화 ▲예산 확대 ▲미래전략산업과 딥테크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의 사회로, 중앙정부, 세종시, 대학, 기업, 세종테크노파크의 협력 역할과 실행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포럼은 세종시가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전략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http://www.newsin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682>

**보도자료** 세종테크노파크 - 보도자료

\*출처 : 뉴스인뉴스(<http://www.newsinnnews.net>)

## - 인천 과학기술, 사람을 잇다 -

제 1회 인천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포럼 개최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 과학기술, 사람을 잇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테크노파크는 3월 11일, 「제1회 인천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인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의 정례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인천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기조강연, 지정토론, 네트워킹 등이 진행되었다.

### ◆ 주요 프로그램

- 기조강연(박호군 인천연구원장) : ‘지역 주도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인천형 과학기술정책 및 인재양성 필요성을 강조
- 지정토론
  - 최욱 교수(인천대) : 지역 전략산업 창업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 체계 필요성 제언
  - 현승군 교수(인하대) : ‘과학기술 혁신거점 50+ 프로젝트’ 제안 등 연구 인프라 확충 방안 제시
  - 신성영 의원(인천시의회) : 과학기술과 행정 간 협력 네트워크 중요성 강조
  - 김청우 국장(인천일보) : 인천의 고층 복합 연구단지 조성 필요성 및 언론의 역할 언급
  - 함지연 대표(도원바이오테크) : 지속가능경영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의 ESG 대응 및 지자체 협력 방안 제시

이번 포럼은 지역 과학기술인의 정례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천형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를 공동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았다. 인천시와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R&D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334>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975>

## 제29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 -탄소중립경제를 향한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전략 모색-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원은 지난 24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폐자원 재활용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전략’을 주제로 「제29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청남도과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정부·충남의 친환경 모빌리티 주요 정책 동향을 과학기술 관점에서 조망하고,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에 나선 한국환경연구원 조지혜 선임연구원은 폐플라스틱 포장재의 효과적인 처리와 자원순환을 위한 열분해 기술의 정책동향을 소개하며, 특히, 열분해 원료화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포어시스 원종화 대표이사는 해양 폐자원을 활용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소재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적용 전략과 실증 결과를 공유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오미혜 강소특구캠퍼스장은 폐배터리와 같은 순환자원을 활용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기술·정책 연계를 강조하였으며, 충남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실증·확산 모델도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최창규 정책기획부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요셉 책임연구원, 충청남도 강태모 미래산업정책팀장, 이구주 자동차산업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충남 지역의 모빌리티 분야 순환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산업육성을 위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강태모 팀장은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정책의 방향성과 산업적 추진 전략을 소개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은 “오늘 포럼에서 제안된 정책·기술적 대안이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주도 R&D사업과의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실증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youtube.com/live/7WV\\_EkAYTrQ?si=P06AhZJLfQXeCgA](https://www.youtube.com/live/7WV_EkAYTrQ?si=P06AhZJLfQXeCgA)

**보도자료** 탄소중립경제를 향한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전략  
모색:충남신문(<https://www.ccsimin.com/247956>)

## 충북도, MS·KT와 AI 협력 파트너십...“AI 전환 가속화”

### -도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역량강화 및 신기술 첨단분야 인재양성-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청북도는 5월 8일(목) 오전 11시 도청 여는마당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주)KT 충남충북광역본부,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함께 ‘충북 AI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충북도 내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역량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AI 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와 협력기관들은 ▲충북 내 기업의 AI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신기술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 협력,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북 기업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KT는 통신·플랫폼 분야의 선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북 지역 맞춤형 AI 전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용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중소중견기업 사업부문장, 송영태 KT 충남충북광역본부 법인고객본부장,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영환 도지사는 “AI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충북이 산업, 행정, 생활 전반에서 AI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확충, △디지털 혁신 로드맵 수립, △디지털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 AI 중심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도자료**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View.do?key=429&bbsNo=65&nttNo=308004&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4>

# 04 R&D 성공사례

스마트 헬스에이징을 향한 강원도의 도전  
「천연물 기반 바이오 소재로 지역 고령화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잡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R&amp;D 성공사례

## 스마트 헬스에이징을 향한 강원도의 도전 「천연물 기반 바이오 소재로 지역 고령화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잡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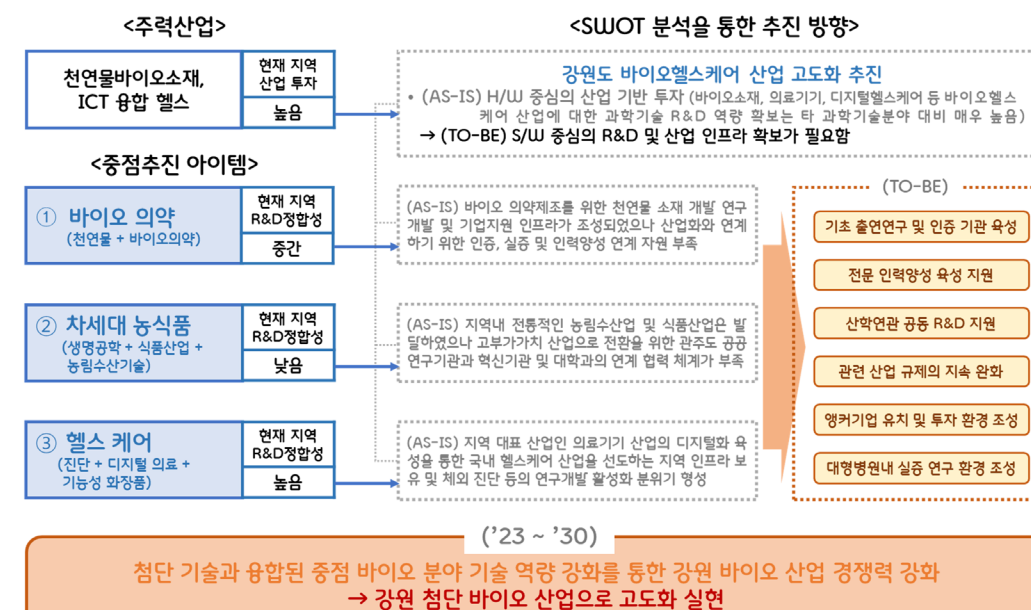
강원연구개발지원단

### ● 현황: 초고령화와 산업정체,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답을 찾아야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현재 도 전체의 고령화율은 24.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30년 기준 고령 비율이 40%까지 증가 예측), 특히 춘천, 속초, 고성 등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농촌과 산간지대가 많은 강원도는 의료 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보건 인프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근감소증, 인지저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사회 전반의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바이오산업 역시 기능성 식품이나 건강기능소재 등 전통적 형태에 머무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는 지역이 직면한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바이오 산업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 바로 강원 생명과학기술 기반의 “강원형 헬스에이징 R&D 기획”이다.

[참고 1. 강원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2023~2030 고도화 전략\_도 바이오헬스과(강원연구개발지원단 기획)]



## ● 기획 방법 및 주요내용: 기존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술을 묶고, 지역을 연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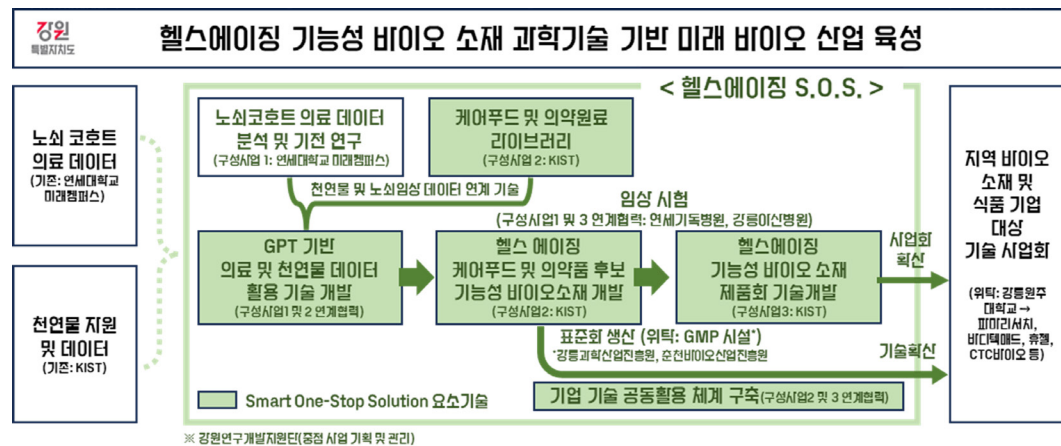
이번 R&D 기획의 핵심은 ‘스마트 헬스에이징(Smart Health-Aging)’이라는 키워드에 있다. 이는 지역 고령자 대상의 실질적 건강문제 해결을 목표로, 의료기관 기반 노쇠 코호트 구축,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디지털 진단 및 분석 플랫폼 구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케어푸드·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의 제품화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기술 개발 전략이다.

이 기획에서 주목할 점은,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과학기술 기획’이라는 패러다임을 실현했다는 점이다. 즉, 노인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기획,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실용적 가치를 모두 갖춘 사례로 평가된다.

### ★ 주요 R&D 전략

- 의료·건강 데이터 기반 고령자 유형 분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주도로 지역 고령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구축한 건강·의료 코호트를 구성하여, 만성질환, 노쇠, 낙상 위험 등의 인자별 특성과 연관 생체지표의 체계화 추진
- AI 기반 천연물 효능 분석 및 소재 스크리닝: 지난 20년간 KIST 천연물연구소 강릉분원에서는 국내외 천연물 500종을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 이를 GPT 계열 모델 기반으로 효능을 예측하여 최종적으로 50종의 기능성소재 후보군을 도출
- 기능성소재의 실증 및 제품화 전략 수립: 소재의 생리활성 평가를 통해 고령자 근감소증, 인지기능 저하, 항염증 효능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케어푸드 6종, 의약품 후보물질 2종 확보 및 건강기능식품은 지역 병원을 통해 1단계 인체적용 시험 진행을 추진

[참고 2. 노쇠 유형 맞춤형 헬스에이징 천연물혁신기술 개발\_KIST 강릉분원(강원연구개발지원단 기획)]



- 산·학·연·병 클러스터 기반 기술 연계: 강릉아산병원, 연세기독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강원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등의 참여로 임상 실증 기반 확대 및 지역 천연물 관련 기업 및 식품가공 기업의 사업화 참여 구조 마련

[참고 3. 강원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기관 협의체]



##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과학기술로 삶을 바꾸는 지역 혁신 플랫폼

이번 기획은 단순히 한두 개의 기술 혹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명기술 기반 산업생태계를 설계한 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노쇠사회’라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이를 과학기술로 해결하여 기술·제품·서비스로 연결시킨 전략적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4. 강원형 스마트 헬스에이징 사업 추진 기대 및 파급효과]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회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고령자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 실현</li> <li>· 디지털 플랫폼 기반 의료정보 분석 체계 강화</li> <li>· 농산어촌 고령자 중심의 지역 건강 불균형 완화</li> <li>· 스마트케어-디지털치료제-기능성식품을 통합한 복합 솔루션 제공</li> </ul>                                    |
| 산업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스에이징 소재 50종 기반의 원료 시장 확대 및 기술이전 활성화</li> <li>· 강원지역 바이오기업의 GMP 기반 실증 확대 및 글로벌 진출 발판 확보</li> <li>· 고령친화산업 전환을 위한 모범 사례로 타 지역 확산 가능</li> <li>· 지역 특화 산업을 국가 R&amp;D 사업으로 연결한 모델 창출</li> </ul> |
| 활용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물바이오 국가첨단산업, 강원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지역 육성 모델로 확장 가능</li> <li>· 민간기업과의 기술이전 체계 및 공동기술메뉴 개발로 실질 사업화 유도</li> <li>· 정부의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보건복지부 디지털헬스 전략과 연계한 후속사업 기획 가능</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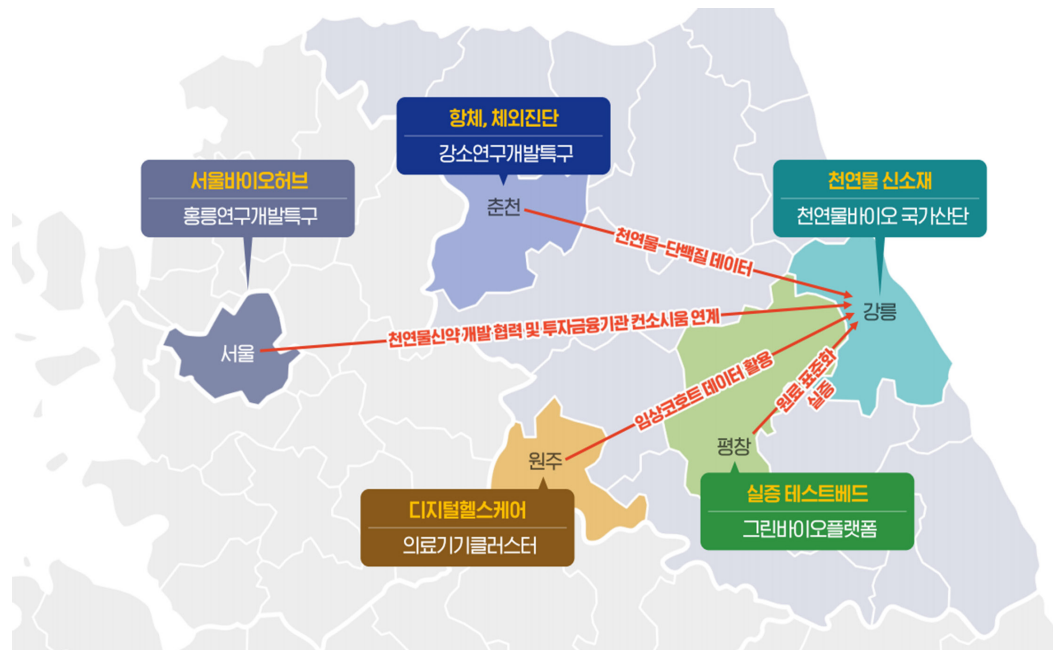
강원은 앞서 기술한 R&D 기획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24년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25년 중점사업 예산 연계를 통해, '25년 과기정통부 첨단 GW 바이오 공모사업 추진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R&D 사업을 통해 강원은 노쇠 유형 맞춤형 건강개선 천연물혁신 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 ★ 마무리하며: ‘문제 해결형 R&D’의 새로운 성공 사례 도출

강원도의 이번 생명과학기술 관련 R&D 기획은 “지역사회가 처한 문제를, 과학기술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을 제시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지역 단위에서 정의하고, 천연물·AI·의료데이터·제품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의 고도화까지 꾀한 이 모델은, 단지 강원도의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형 지역혁신 모델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 전망되어진다.

이제 과학기술은 단지 경제성장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회복력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스마트 헬스에이징’은 강원도가 그 미래를 향해 던진 제안이며, 이 모델은 곧 강원도의 기획력을 보여주는 대표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 5.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바이오헬스케어 클러스터 육성 전략]



##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 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                          |
|----|------------------------|--------------------------|
| 강원 |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 rnd.gsipa.or.kr          |
| 경기 |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 gtis.gbsa.or.kr          |
| 경남 |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 gctis.gntp.or.kr         |
| 광주 |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 gjtis.gjstec.or.kr       |
| 대구 |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 dtis.re.kr               |
| 대전 |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 daon.distep.re.kr        |
| 부산 |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 btis.bistep.re.kr        |
| 서울 |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 www.stis.or.kr/home/home |
| 세종 |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                        |
| 울산 |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 rnd.utp.or.kr            |
| 인천 | 인천R&D정보시스템             | irds.itp.or.kr           |
| 제주 |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                        |
| 전남 |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 jntis.jnsp.re.kr         |
| 전북 |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 rnd.jbtp.or.kr           |
| 충남 |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 www.cnstis.net           |
| 충북 |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 researchweb.cbist.or.kr  |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               |              |    |           |              |
|----|---------------|--------------|----|-----------|--------------|
| 강원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 033.650.3320 | 세종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35 |
| 경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554 | 울산 | 울산테크노파크   | 052.219.0852 |
| 경남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445 | 인천 | 인천테크노파크   | 032.260.0741 |
| 경북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054.479.2217 | 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33 |
| 광주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9.0411 | 전남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749 |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3776 | 전북 | 전북테크노파크   | 063.260.9322 |
| 대전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042.865.0511 | 충남 | 충남연구원     | 041.540.3807 |
| 부산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 051.795.5023 | 충북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043.210.0866 |
| 서울 | 서울테크노파크       | 02.944.6072  |    |           |              |

